담뱃값 추가 인상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김 양 중 한겨레신문의료전문기자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을 두고 관련 부처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논란은 매우 뜨겁다. 지난해 말 담뱃값을 500원 인상했더니 경제성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저소득층이 담뱃세를 더 많이 낸다며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지적도 있으며,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도 있다. 가격 인상 반대에 열심히 나서는 쪽은 역시 경제 분야로,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월 경제 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를 담배 가격 인상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쪽은 담뱃값 인상이 분명 청소년을 비롯한 성인의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이번에 추가로 인상해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제 영역에도 비판을 가하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을 정리하면서 담뱃값 추가 인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경제 부처 쪽에서도 담뱃값 인상이 담배 소비 감소를 촉진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번 담뱃값 추가 인상 논의에서 양쪽 모두 부인하지 않는 내용은 담뱃값 500원 인상이 담배 소비 및 흡연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큰 맥락에서는 이를 기본에 두고 논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지점에서 가능하다. 일단 담뱃값 인상이 담배 소비를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는 경제 부처 쪽의 주장도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를 불러왔다는 근거가 된다. 지난달 중순께에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분기(1~3월) 성장률이 3%에도 못 미치는 이유를 '담배 탓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편에 선 쪽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말 이뤄진 담뱃값 인상과 올 초 불어닥친 금연 열풍 때문에 담배 생산이 올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4%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경제만 생각하는 쪽에서는 울상 지을 소식일 수 있으나, 폐암 등 각종 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인 담배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매우 반길만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아무튼 경제 부처 쪽에서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로 담뱃값 인상이 담배 소비를 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흡연율의 실제적인 감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4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7%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3.4%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담배를 끊은 사람의 73%가 가격 인상 때문이고, 나머지는 건강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케이티앤지(KT&G)도 비슷한 시기에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리서치에의뢰해 272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가격 인상 뒤인 지난달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1.4% 줄긴 했지만 가격 인상의 영향은 0.33%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고민이 들긴 하지만 결국 흡연율 감소에 두 조사 자료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 담뱃값 인상 및 금연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담배 소비를 더 줄이지 않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경제 부처 쪽은 담뱃값 인상으로 당장 물가가 오르고, 담배 생산이 감소해 경제 성장도 줄어들므로 추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들의 건강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건강한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제성장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경제 부처 쪽에서는 흡연의 폐해가 흡연을 시작한 지 20년 뒤 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발등의 불' 인 물가 및 경제 성장을 고민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담뱃값 인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간단한 설명으로,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암은 폐암이다. 암이 생기자마자 진단할 수 있는 적절한 조기 진단법이 아직까지 없어, 대부분 진행돼 발견된다. 그 때문에 치료도 매우 까다로울 뿐더러 암 가운데 사망할 가능성도 가장 높다.

이 뿐만이 아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0배 이상이라고 한다. 숨쉬기가 어려워 괴로움을 겪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은 흡연자에서 폐암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암의 대부분의 원인이 흡연이다. 지금 담배를 끊어서 20년 뒤에 폐암이 크게 줄어든다면 그 때 크게 들어갈 의료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 생산력이 튼튼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20년 뒤 후손들에게 찬사를 받느냐, 맹렬한 비판을 받느냐를 고민하면서 경제 부처 쪽은 의견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 인상 정책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면 담뱃값을 인상할 때보다 7.8~135.8배의 비용이 든다는 추계치를 내놓은 바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 성장을 생각한다면 담뱃값 인상에 적극 동의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 저소득층이 담뱃세 더 많이 낸다?

담배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피우고, 끊기도 힘들므로 결국 저소득층이 담뱃값에 든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며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도 있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저소득층은 담배 많이 피우다가 폐암 같은 질병에 걸려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 죽으라는 이야기냐?"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논란이 나온 만큼 이 지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듯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를 줄이고, 소득세와같은 직접세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 부처가 적극적으로 앞서길 바란다. 이미 여러 곳에서 주장했듯이 소비세는 소득 역진적이므로 이번 담뱃값을 계기로 이를 개선해 저소득층이 소비세에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저소득층의 흡연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을 저소득층 금연 및 질병 관리,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국 240여개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클리닉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